

# 18세기 초중반 『山林經濟』와 『增補山林經濟』의 편찬 의의 — 「治農」을 중심으로 —

廉定燮\*

머리말

1. 18세기 초 洪萬選의 『山林經濟』 편찬

- (1) 洪萬選의 생애
- (2) 『山林經濟』 구성체제의 특징

2. 18세기 중반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 편찬

- (1) 醫官 柳重臨의 생애
  - (2) 『增補山林經濟』의 구성체제
- 맺음말

## 머리말

조선시대의 農書 편찬은 15세기로부터 시작되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루어졌다.<sup>1)</sup> 조선 초기로부터 17세기 후반까지 농서 편찬의 흐름을 검토하면 태종대에 中國의 『農桑輯要』를 초록하여 本國 俚語로 번안한 『農書輯要』가 편찬된 것을 우선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세종대에 이르러 朝鮮의 風土에서 유래한 농업기술을 수록한 農書로 『農事直說』(1429년)이 편찬되었다.<sup>2)</sup> 『農事直說』은 조선의 농업기술을 정리한 최초의 農書로 커다란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15세기 후반에 姜希孟은 경기도 衿陽에서 『衿陽雜錄』을 편찬하였다.<sup>3)</sup> 16세기 중후반 이후 당시의 地域的 農法을 정리한 地域農書가 현재까지 몇 건만 전해지고 있다. 全羅道 玉果 지역에서 柳彭老가 『農家說』을 편찬하였고, 慶尙道 尙州 지역에서 高尙顔이 각각 『農家月令』을 편찬하였다.<sup>4)</sup> 地域農書들은 私撰農書이기도 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地域的 農法의 특색을 담고 있는 地域農書라는 점이었다.<sup>5)</sup>

\* 필자 : 규장각 책임연구원

- 1) 조선시대의 農書 편찬에 대해서는 다음 論著를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 金容燮, 1988,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李盛雨, 1981, 『韓國食經大全』, 鄉文社; 金榮鎮, 1984, 『朝鮮時代前期農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廉定燮, 2000, 「조선시대 農書 편찬과 農法의 발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2) 金容燮, 2000, 「世宗朝의 農業技術」 『韓國中世農業史研究』, 知識産業社; 金容燮, 1988,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 3) 金容燮, 1988, 「『衿陽雜錄』과 『四時纂要抄』의 農業論」,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朴京安, 1999, 「姜希孟의 家學과 農業經營論」, 『實學思想研究』10·11合輯.
- 4) 洪在然, 1968, 「『農家月令』攷-附原文, 校註-」, 『東洋文化』6·7, 영남대 동양문화연구소; 閔成基, 1985, 「『農家月令』과 16世紀의 農法」, 『釜大史學』9.
- 5) 廉定燮, 2000, 앞의 논문.

조선 초기 이래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한 농업생산기술은 16세기 후반 이후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고 있었다. 벼농사 기술에서 경상도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채택되던 移秧法이 점차 三南지역에 보급되었고, 계속해서 일반적인 耕種法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밭농사 기술에서도 根耕法과 間種法의 체계적인 뿌리내림을 바탕으로 1년 2작의 二毛作이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정착되고 있었다. 게다가 施肥法의 발달, 새로운 곡물 品種의 개발, 外來작물의 재배 등은 구체적인 생산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兩亂 이후 조선의 농업생산력 수준을 제고시키고 있었다.<sup>6)</sup> 따라서 이러한 농업기술의 발달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農書 편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때 편찬될 農書는 곡물 경작법만 담는 것이 아니라 木綿 재배법을 포함하여 菜蔬·樹木 등의 재배법도 담고 있는 綜合農書의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했다.

17세기 중반인 1655년에 申澗이 『農家集成』을 편찬하였다.<sup>7)</sup> 申澗은 『農事直說』과 世宗의 勸農敎文, 朱子의 勸農文, 姜希孟의 『衿陽雜錄』·『四時纂要抄』를 하나로 모아 『農家集成』이라는 제목의 農書를 편찬하였다. 申澗의 『農家集成』은 지역적인 농법을 결집한 地域農書의 편찬이라는 흐름을 계승하면서, 또한 동시에 木綿을 포함한 여러 작물을 편입시켜 『農事直說』을 增補하면서 農書의 내용을 다양하고 종합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農書를 合錄한 『農家集成』의 편찬은 이제 農書 편찬의 흐름이 본격적인 종합농서의 등장으로 나아갈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朴世堂이 중국 元代의 농서인 『農桑輯要』를 抄錄하여 『穡經』을 편찬하였다.<sup>8)</sup>

18세기 초반 洪萬選이 『山林經濟』를 편찬하면서 綜合農書 편찬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sup>9)</sup> 洪萬選은 穀物·菜蔬·樹木 등의 재배법을 포함한 農書로 『山林經濟』를 편찬하였다. 조선시대 農書 편찬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山林經濟』의 편찬은 中國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洪萬選은 『山林經濟』 「治農」을 편찬하면서 기본적으로 『農事直說』을 ‘祖宗成憲’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내용에 일정한 보완과 수정을 더하면서 申澗이 『農家集成』을 편찬하면서 견지했던 자세를 진일보시켰다. 『山林經濟』 「治農」이 편찬되어 세상에 나온 이후 朝鮮의 農書 편찬의 흐름에 『山林經濟』의 내용을 일차적인 저본으로 삼고 이를 증보하는 방식이 하나의 커다란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18세기 중반 이후 『山林經濟』를 增補한 農書, 이른바 ‘山林經濟增補書’가 연이어 편찬되

6) 조선 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 특히 농업기술의 발달에 대해서는 다음 論著를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 金容燮, 1971, 『朝鮮後期農業史研究Ⅱ』, 一潮閣; 閔成基, 1990, 『朝鮮農業史研究』, 一潮閣; 金榮鎮·李殷雄, 2000,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 서울대학교출판부; 廉定燮, 2000, 앞의 논문.

7) 金容燮, 1988, 「3. 『農家集成』의 編纂과 그 農業論」,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8) 박세당은 『農桑輯要』의 기술 내용을 조선적 농업환경 이른바 ‘朝鮮의 風土’에 의거하여 발췌하고 초록하는 방식으로 『穡經』을 편찬하였다. 金容燮, 1988, 「1. 『穡經』의 農業論과 그 增集」,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金榮鎮, 2001, 「解題」, 『穡經』, 고농서국역총서1, 농촌진흥청; 廉定燮, 2001, 「박세당의 농서 『穡經』」, 『문헌과해석』16(2001년 가을), 문헌과해석사.

9) 金容燮, 1988, 「2. 『山林經濟』의 編纂과 그 農業論」,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었다.<sup>10)</sup> 『山林經濟』 자체가 수많은 필사본으로 유통되면서 그 본문을 增補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은 ‘增補書’가 편찬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山林經濟增補書’가 잇달아 편찬되는 상황은 농서편찬의 커다란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모아지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16세기 중반 이후 농서 편찬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진행된 地域農書의 편찬이라는 흐름과 17세기 중반 『農家集成』이라는 綜合農書를 지향하는 農書가 편찬되면서 종합적인 農書를 편찬하려는 흐름이 점차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고, 그러한 경향을 가장 선연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山林經濟增補書’들이었다. 그러한 ‘山林經濟增補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柳重臨이 편찬한 『增補山林經濟』이다.

『農事直說』의 편찬에서 ‘山林經濟增補書’의 대두에 이르기까지 농서 편찬의 흐름의 큰 줄기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잘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山林經濟』와 『增補山林經濟』의 편찬 의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번째로 『山林經濟』와 『增補山林經濟』의 편찬자인 洪萬選과 柳重臨의 개인적인 생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려고 한다. 두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洪萬選과 柳重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질의 종합농서를 편찬하였는지 그 편찬 목표를 충분히 따져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착안하여 洪萬選과 柳重臨의 일생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밝혀보았다.

두번째로 『山林經濟』와 『增補山林經濟』의 구성체제의 특질을 「治農」을 중심으로 조목의 增加·補完 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山林經濟』와 『增補山林經濟』의 체제와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한 정리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山林經濟』와 『增補山林經濟』의 項目과 條目 구성의 특색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山林經濟』와 『增補山林經濟』의 필사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을 소개하려고 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5종의 『山林經濟』와 8종의 『增補山林經濟』가 소장되어 있다.<sup>12)</sup> 이 중에서 특히 『增補山林經濟』의 다양한 所藏本을 검토하면 당시 이 農書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金容燮, 1988, 「3. 『山林經濟』의 增補와 그 農業論」,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11) 金容燮, 1988,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廉定燮, 2000, 앞의 논문.

12)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山林經濟』 5종의 청구기호는 『奎章閣所藏韓國本綜合目錄』에 따르면 <古 9100-9>, <古 9100-6>, <一蓑 古 630.2-H758s>, <一蓑 古 630.2-H758sa>, <想白 古 630.951-H758s> 등이다. 그리고 『增補山林經濟』 8종의 청구기호는 <一蓑 古 630.2-J572s>, <一蓑 古 630.2-J572>, <一蓑 古 630.2-J572b>, <古 9100-1>, <古 9100-10>, <奎 7676>, <奎 12688>, <古 9100-1A> 등이다.

## 1. 18세기 초 洪萬選의 『山林經濟』 편찬

### (1) 洪萬選의 생애

18세기 초 洪萬選(1642~1715)이 편찬한 『山林經濟』는 단순한 農書가 아니라 山林에 거처하는 處士가 익숙하게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書冊이었다. 『山林經濟』의 한 항목인 「治農」은 작물 재배 기술을 수록하고 있어 農書에 해당되는 부분이였다.<sup>13)</sup> 또한 『산림경제』는 治圃·種樹·養花·養蠶·牧養·救荒 등의 항목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항목은 넓은 의미의 農書에 포괄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산림경제』를 穀物과 채소, 수목 등의 耕作法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綜合農書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農書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卜居·攝生 등의 항목과 醫藥에 관련된 조목들도 『산림경제』에 실려 있었다. 따라서 『山林經濟』의 전체적인 성격은 山林 處士를 자처하는 士族들이 익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 生活指針書라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山林經濟』가 세상에 나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벌써 편찬자가 洪萬選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전승되지 않고 있었다. 18세기 중반에 『山林經濟』를 增補하여 『增補山林經濟』를 지은 柳重臨과 「增補山林經濟序」를 지은 任希聖조차도 누가 언제 『山林經濟』를 편찬하였는지 모른다고 토로할 정도였다.<sup>14)</sup>

『山林經濟』의 편찬자에 대하여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增補文獻備考』 藝文考의 서술자는 朴世堂으로 잘못 소개하였다.<sup>15)</sup> 그리고 1916년 『山林經濟』를 『朝鮮博物志』라고 改名하여 일본어로 번역할 때 序文을 지은 靑柳南冥은 丁若鏞이 『山林經濟』의 편찬자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sup>16)</sup>

1937년에 이르러 富樫直次郎과 三木榮은 洪萬宗이 지은 「山林經濟序」 등에 의거하여 洪萬選이 편찬자라는 점을 밝혀냈다.<sup>17)</sup> 그리고 趙顯命이 지은 洪萬選의 碣銘인 「掌樂正洪公碣銘」에 “公이 지은 山林經濟 4권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sup>18)</sup>라고 지적한 것과 『山林經濟』

13) 洪萬選, 『山林經濟』 권1, 「治農」(亞細亞文化社, 韓國近世社會經濟史料叢書 『農書』2, 88면; 이하에서는 『農書』2로 略記함). 이 叢書에 실린 『山林經濟』는 吳漢根 소장본 本文과 慶北大學校도서관 소장본(도서번호 45401)의 序文을 합쳐서 영인 간행된 것이다.

14) 任希聖, 「增補山林經濟序」, 『增補山林經濟』(柳重臨 撰), 『農書』3, 4면.

15) 『增補文獻備考』 권247, 藝文考六, 農家類(영인본, 下, 895). “稽經一卷 文節公朴世堂撰 山林經濟四卷 上同.”

16) 丁若鏞은 『山林經濟』 편찬자로 소개한 『朝鮮博物志』는 간행된 이후 일반에 널리 알려졌는데,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도 4종이 소장되어 있다.

17) 富樫直次郎·三木榮, 1937, 「山林經濟考」, 『朝鮮』 3월호 262號 拔刷(서울대 구관도서 9100-296).

「卜居」 끝에 星州에 거주하던 李國美란 사람이 “洪士中(士中은 洪萬選의 字)先生이 山林經濟를 지을 때 이 그림을 보았다”라고 언급된 것을 살펴보아도 洪萬選이 『山林經濟』 편찬자임이 분명하다.<sup>19)</sup> 이후 慶北大 소장본에도 洪萬宗의 序文이 등재되어 있어서 『山林經濟』의 편찬자가 홍만선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洪萬選의 개인적인 약력이나 생애에 관련된 자료는 『山林經濟』에 붙어 있는 「山林經濟序」와 洪萬選의 碣銘인 「掌樂正洪公碣銘」 정도에 불과하다.<sup>21)</sup> 「山林經濟序」는 洪萬選의 從兄인 洪萬宗이 지은 것인데 『山林經濟』의 앞머리에 실려 있다.<sup>22)</sup> 그리고 「掌樂正洪公碣銘」은 趙顯命이 지은 것으로 『歸鹿集』에 들어 있다.<sup>23)</sup> 한편 『朝鮮王朝實錄』 기사에는 1696년(숙종 22) 吏曹에서 善治 守丞으로 보고한 19인의 명단에 大興 郡守 洪萬選의 이름이 올라 있다.<sup>24)</sup> 위의 두 가지 자료를 통해 홍만선의 생애를 대략 정리할 수 있다.

洪萬選은 豐山 洪氏로 父는 洪柱國, 祖父는 洪震이다. 字는 士中이고, 號는 流巖이다. 洪萬選의 아버지인 洪柱國은 顯宗 재위시기에 臺諫으로 관직생활을 수행하면서 西人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sup>25)</sup> 그런데 현종 말년 다시 禮訟이 일어났을 때 홍주국은 예전에 仁宣王妃의 初喪을 당하여 服制를 논의하여 朞年服으로 결정할 때 “衆庶의 초상에는 大功을 입는다”라는 주장을 은연중에 편 것으로 지목되었다. 그리하여 이때 洪柱國은 의금부의 문초를 받고 유배되었다가 숙종 초년에 가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sup>26)</sup>

洪萬選 父系에서 農書 편찬에 관련한 경험을 지닌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洪萬選의 7촌 叔父(三從叔)인 洪柱世이다. 洪萬選의 부친인 洪柱國의 祖父 洪履祥和 洪柱世의 祖父인 洪鸞祥이 형제간이었다. 따라서 洪柱國과 洪柱世는 6촌 형제 사이였고, 洪柱國의 長子인 洪萬選은 洪주세와 7촌간이었다. 洪柱世는 『小華詩評』 등을 지은 洪萬宗의 부친이었다.<sup>27)</sup> 홍주세는 효종 초년에 申冕과 사이 좋게 지내고, 또한 宋時烈 등과도 어울렸는데, 士類의 논의가

18) 趙顯命, 『歸鹿集』 권14, 「掌樂正洪公碣銘」(『韓國文集叢刊』 212, 553면). “公所著 山林經濟四卷 行於世 公之高風雅操 猶可想見也.”

19) 金容燮, 1970, 『朝鮮後期 農學의 發達』, 韓國文化研究叢書2, 71면(1988,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재수록); 辛承云, 1982, 「解題」, 『국역 산림경제』1, 민족문화추진회.

20) 『山林經濟』 편찬자를 둘러싼 논란의 전체적인 모습은 辛承云의 「解題」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辛承云, 1982, 「解題」, 『국역 산림경제』1, 민족문화추진회).

21) 金容燮, 1981, 「農書小史」, 『農書』1, 13면.

22) 洪萬選, 『山林經濟』 序(洪萬宗), 『農書』2, 3면.

23) 趙顯命, 『歸鹿集』 권14, 「掌樂正洪公碣銘」(『韓國文集叢刊』 212, 552~553면).

24) 『肅宗實錄』 권30, 숙종 22년 2월 丙午.

25) 洪柱國의 문집인 『泛翁集』은 1709년 아들인 洪萬選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때 홍만선은 아우인 萬迪의 詩文을 모은 『臨湖遺稿』와 『泛翁集』을 合刊하여 경상도 義城에서 刊行하였다. 앞서 송시열로부터 아버지 『泛翁集』의 서문을 받아두었던 것과 1709년 金昌翁으로부터 받은 「臨湖遺稿序」를 각각의 卷頭에 두고, 두 사람의 詩文을 엮은 것이었다(『규장각소장문집해설』6, 泛翁集 附 臨湖遺稿).

26) 『顯宗改修實錄』 권27, 현종 15년 2월 壬戌; 『肅宗實錄』 권1, 숙종 즉위년 9월 庚辰. 한편 史官은 洪柱國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時勢에 아첨하였다고 비판하였다(『顯宗實錄』 권15, 현종 9년 10월 壬辰).

27) 『萬姓大同譜』 下, 豐山洪氏, 72~76면.

과격한 것을 조정시키려는 疏文을 올렸다가 신면을 비호하는 것이라는 혐의를 받아 물의가 일어나 이후 오랫동안 官職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淸望에 추천되었지만 물의가 생겨서 낙점을 받지 못하였다.<sup>28)</sup> 洪柱世는 官歷의 측면에서 불운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인물이었다.

洪柱世는 申澗의 『農家集成』 편찬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申澗이 『農家集成』을 편찬하기 이전에 公州에서 『農事直說』을 刊行할 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sup>29)</sup> 뿐만 아니라 申澗이 1655년 『農家集成』을 편찬하였을 때에도 申澗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農家集成後叙」를 지어 『農家集成』 편찬 전말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는 「農家集成後叙」에서 申澗이 『農家集成』을 편찬한 전말을 소개하고 孝宗이 水車를 八方에 내린 것이 世宗이 『農事直說』을 간행한 것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sup>30)</sup> 洪萬選의 三從叔인 洪柱世의 이러한 농서 편찬 참여 경험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洪萬選의 농서 편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洪萬選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洪萬選은 1643년(인조 21)에 태어나 1666년(顯宗 7) 進士試에 합격하였다. 그가 38세 되던 해인 1680년 아버지 洪柱國이 사망하였고, 2년 뒤인 1682년(숙종 8)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홍만선의 관직 생활은 趙顯命이 30년 동안이었다고 지적한 것처럼 꽤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홍만선이 1682년(숙종 8, 壬戌)부터 관료로 나섰다고 계산하면 대략 1712년까지 官僚의 지위를 유지한 것이 된다.<sup>31)</sup>

洪萬選은 관직생활의 상당 부분을 外方에서 牧民官으로 지냈다. 趙顯命의 墓碣銘에 따르면 連源察訪, 咸興判官, 陝川郡守, 高陽郡守, 丹陽郡守, 仁川都護府使, 大興郡守, 富平府使, 尙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다.<sup>32)</sup> 이 중에서 마지막에 거친 外職이 경상도 尙州였을 것으로 보인다. 『慶尙道邑誌』의 尙州篇에서 尙州 牧使로 재직한 인물을 기록한 宦蹟에 洪萬選의 이름이 올라 있다.<sup>33)</sup> 그리고 『尙州牧先生案』에 따르면 홍만선은 1706년 7월에 부임하여 12월에 교체되어 불과 5개월 정도만 상주목사로 재직하였다.<sup>34)</sup> 이때 홍만선은 나이가 벌써 64세로 年老한 형편이었다.

상주목사를 이임한 이후 역임한 관직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형편이다. 다만 이후 內職으로

28) 『顯宗改修實錄』 권3, 현종 1년 6월 癸巳.

29) 申澗, 『農家集成』 後叙(洪柱世), 규장각 <가람 古 630.88-Si62n>, “農事直說 鈐于公山也 余既有糠粃之引矣.”

30) 申澗, 『農家集成』 後叙(洪柱世), 규장각 <가람 古 630.88-Si62n>.

31) 趙顯命, 『歸鹿集』 권14, 「掌樂正洪公碣銘」(『韓國文集叢刊』 212, 553면), “公 以仁廟癸未生 中丙午進士 自壬戌 筮仕三十年.”

32) 趙顯命, 『歸鹿集』 권14, 「掌樂正洪公碣銘」(『韓國文集叢刊』 212, 553면), 이 가운데 대흥 군수로 재직하였던 점은 『肅宗實錄』에 기록되어 있다(『肅宗實錄』 권30, 숙종 22년 2월 丙午). 그리고 陝川 郡守를 지냈다는 점은 『慶尙道邑誌』(1832년경) 郡守 先生案에 수록되어 있다(『慶尙道邑誌』 第十五冊, 陝川, 宦蹟, 韓國地理志叢書 邑誌 慶尙道①, 아세아문화사, 728면).

33) 『慶尙道邑誌』(1832년경) 第六冊, 尙州, 宦蹟(韓國地理志叢書 邑誌 慶尙道①, 아세아문화사, 279면).

34) 『尙州牧先生案』(尙州市·尙州産業大尙州文化研究所, 1997 『尙州咸昌牧民官』 480면).

육거 軍資監과 掌樂院의 正을 역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710년 蔭職으로 軍資監 正이 되었다가,<sup>35)</sup> 掌樂院 正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여,<sup>36)</sup> 1715년(숙종41)에 사망할 때까지 상당히 짧은 기간 정도 山林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만선의 최후 관직이 掌樂院 正이기 때문에 趙顯命이 墓碣銘을 지을 때 洪萬選의 官職名을 그렇게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洪萬選은 30년의 관직생활을 거치면서 山林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하나로 『山林經濟』를 편찬하였다. 州郡의 守令職을 거치면서 익힌 見聞과 방대한 讀書의 결과로 『山林經濟』를 편찬하였다.<sup>37)</sup> 그런데 洪萬選이 적어도 1706년까지 守令職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山林經濟』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시기는 아무리 이른 시기로 잡아도 1706년 이전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게다가 1710년 軍資監 正에 나아간 것까지 포함하면 이 이후에 『山林經濟』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짧은 기간에 편찬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산고를 거쳐 완료되었다.

洪萬選의 『山林經濟』 편찬 작업을 옆에서 지켜본 三從兄 洪萬宗은 「山林經濟序」에서 홍만선이 지방 수령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본래 山林에 나가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山林經濟』를 편찬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38)</sup> 홍만종의 설명만을 고려하면 洪萬選이 山林에 은거하기를 결심한 이후에 『山林經濟』를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山林經濟』의 구성체제가 방대하고 수많은 인용문헌을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許筠의 『閑情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등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편찬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 郡縣의 守令을 거치면서 획득한 俗方을 「治農」에 수록하고 있다는 점도 『山林經濟』가 오랜 편찬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18세기 초 무렵에 완성된 洪萬選의 『山林經濟』 「治農」에 수록되어 있는 농업기술은 여러 시기의 것이 중첩되어 있다. 하지만 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山林經濟』가 기본적으로 『農事直說』(申澗의 『農家集成』)을 토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16세기 이래 17세기를 거쳐 발달된 농업기술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 (2) 『山林經濟』 구성체제의 특징<sup>39)</sup>

『산림경제』의 전체적인 체제를 보면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項目은 卜居·攝生·

35) 辛承云, 1982, 「解題」, 『국역 산림경제』1, 민족문화추진회.

36) 趙顯命, 『歸鹿集』 권14, 「掌樂正洪公碣銘」(『韓國文集叢刊』 212, 552~553면).

37) 洪萬宗, 「山林經濟序」, 『山林經濟』(『農書』2, 3면).

38) 洪萬宗, 「山林經濟序」, 『山林經濟』(『農書』2, 3면). “宗弟 洪萬選士中甫 博雅君子也 世以公輔期 卒路於公車 乃從蔭道 屢典州郡 輒有聲績 而非其志也 遂思自放於山林 輯成一書 分爲四大卷 (….) 總而名之曰 山林經濟.”

39) 이하 『山林經濟』 「治農」에 대한 설명은 『農書』2(亞細亞文化社)에 영인되어 있는 필사본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전거를 밝혀야 할 부분이 아니면 일일이 각주를 다는 것을 생략하였다.

治農·治圃·種樹·養花·養蠶·牧養·治膳(朝鮮)·救急·治藥(理藥)·救荒·辟瘟·辟虫·選擇(涓吉)·雜方 등 총 16條이다.<sup>40)</sup> 이 가운데 「治農」이 본격적인 작물 경작법을 정리한 부분이고, 治圃·種樹·養花·養蠶·牧養·救荒 등의 항목은 종합적인 農書로 편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채소류의 재배, 나무와 꽃 재배, 나머지 음식 만들기(治膳) 항목, 醫藥에 포함되는 救急·辟瘟·辟虫·理藥 등의 항목, 擇日의 기준을 설명한 涓吉, 최후에 붙어 있는 雜方 등이 붙어 있다.

『山林經濟』 권1, 「治農」이 식량작물의 생산기술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農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治農」의 체제는 『농사직설』·『농가집성』으로 이어지는 조선 農書의 특징적인 양상과 그대로 연결된다. 主穀 작물 위주로 서술되었다는 점과 각 작물별 재배법을 하나의 조목으로 정리하였다는 점, 그리고 『산림경제』의 내용 자체가 『농사직설』 등에서 인용하면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山林經濟』의 구성체제 특징을 項目·條目的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산림경제』 「治農」에 수록되어 있는 농업기술, 작물재배기술에 관련된 서술은 洪萬選 자신의 독창적인 기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산림경제』 전체 내용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대한 引用 書目에서도 알 수 있듯이, 「治農」의 내용도 여러 가지 다른 農書 등에서 인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治農」의 내용은 두 가지 서로 성격이 다른 계통에서 인용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산림경제』 이전에 편찬된 여러 農書로부터 인용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農書가 아닌 見聞이나 傳聞에 의거하여 수합한 俗方を 기록한 부분이다. 농서에서 인용한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선에서 편찬된 농서로부터 인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中國 農書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조선에서 편찬된 農書 가운데 中國 農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제한 『閑情錄』과 같은 농서는 사실 조선의 農法을 담고 있는 농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제의 농업기술의 내용이 조선의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것인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요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할 경우, 조선의 농법을 인용한 부분은 실제적인 농업기술 권장 내용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고, 중국의 농법을 인용한 부분은 참고할 만한 중국의 농업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림경제』가 인용한 책을 조사하는 경우 俗方の 인용, 중국 농서의 인용, 조선 농서의 인용으로 나누고, 조선 농서의 인용은 조선의 농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1>은 『山林經濟』 「治農」에 인용된 농업기술의 인용처를 조사하여 그 횟수를

40) 『農書』2에 영인되어 있는 筆寫本의 항목 명칭과 洪萬宗의 「山林經濟序」에서 소개한 항목 명칭이 약간 차이가 있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항목 명칭이 「山林經濟序」에 보이는 명칭이다.



밝힌 것이다. <표 1>을 작성하면서 『산림경제』 「치농」 각 조목 중에 명백하게 인용서명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확인을 통해서 밝혀 두었다. 그리고 稻種·大小麥種 등 品種을 소개한 부분에 들어 있는 인용은 횃수를 헤아리는 데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표 1>에서 인용횃수를 인용서 뒤에 곧바로 표시하였는데, 앞의 숫자가 전체조목의 인용처로 기록된 경우이고, 뒤의 숫자가 細註에서 인용처로 표시된 경우이다. 이렇게 인용의 질적인 성격을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각 農書에서 인용한 것이 『산림경제』에서 차지하는 질적인 비중을 찾아볼 수 있다.

<표 1>을 보면 우선 조선 農書에서 인용한 횃수가 전체조목인 경우와 세주인 경우 각각 120-22건, 중국 농법을 담고 있는 中國 農書에서 인용한 횃수가 104-32건이다. 단순하게 횃수만 비교하는 것은 실제 각 인용 건수마다 분량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제한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선 農書에서 인용한 부분이 중국 농서에 못지 않은

<표 1> 『山林經濟』 「治農」의 引用處와 引用 條目數 내역 (전체조목-세주)

항목	조목수	俗方 인용	朝鮮 農書 引用	中國 農書 引用
驗歲	35건		類說1-3 閑情補1-0	神隱9-0 纂要26-0 周禮1-0
祈穀	6건			神隱6-0
擇種	7건	1-0	直說3-0 閑情2-0	神隱1-2 纂要3-0
收糞	7건	0-1	直說6-0	纂要補1-0
耕播	29건		直說12-0 直說補2-0 衿陽2-0 閑情補5-0 閑情錄1-0	必用5-0 博物志1-0 纂要2-0 神隱1-0
種稻	22건	2-0	直說17-1 衿陽1-0 閑情錄4-6 直說補2-1	必用1-0 神隱1-6
種黍粟稷菽黍	18건		直說15-0	必用2-0 纂要2-0 神隱1-1
種大豆小豆菜豆	17건		直說10-0 閑情2-2	必用3-0 神隱4-4
種芝麻水蘇麻	6건		直說4-1 閑情1-1	纂要1-2 神隱1-1 必用1-1
種蕎麥	5건		直說2-0	必用1-0 纂要1-2 神隱1-0
種大小麥	18건	2-0	直說10-0 閑情錄1-1	神隱4-4 必用4-0 纂要1-0
種薏苡	2건			必用1-0 纂要1-0
種木花	5건		直說3-0 閑情2-2	纂要0-1 神隱1-1
種麻苧麻	14건	2-0	直說6-0 閑情1-2	必用2-0 博物志1-0 神隱4-2 纂要1-0
種紅花	4건		閑情2-2	神隱2-1 纂要2-0
種藍	3건	0-1		神隱2-0 纂要1-1
種靛	3건		閑情2-0	神隱1-3
種茵草	1건	1-0		
합계 (232-56건)	202건	8-2건	120-22건	104-32건

\* 원래의 條目數와 引用 條目數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細註의 引用 條目數를 따로 헤아렸기 때문이다.

\*\* 直說은 『農事直說』(申澗의 『農家集成』), 衿陽은 『衿陽雜錄』, 必用은 『居家必用』이다.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조선 農書에서 인용한 부분이 조목 전체의 인용처로 기록된 것이 중국 농서에서 인용한 것보다 월등 많고, 반대로 세주부분에 인용처로 기록된 것에서는 중국 농서에서 인용한 것이 훨씬 많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산림경제』의 인용 문헌 조사에서 드러난 점은 俗方이라는 명목이 붙어 있는 인용부분이 8-2건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대적인 增補를 통해 아주 새로운 농서로 『산림경제』 「治農」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하게 알 수 있다. 위의 <표 1>에서 다시 각 農書 별로 인용횟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山林經濟』 「治農」에 인용된 많은 農書 가운데 『農事直說』 즉 申澍의 『農家集成』에서 증보된 『농사직설』이 제일 많은 인용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다. 전체 232-56건 가운데 88-2건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조목의 인용처로 기록된 것 가운데 37.9%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種紅花·種藍·種藍·種茵草 등 治圃에 수록되어야 마땅할 작물 재배법을 담고 있는 조목 13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219건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40.2%로 증가한다. 이와 같이 수량적인 비중의 측면에서 『산림경제』의 내용 구성에 『농사직설』이 차지하는 지배적인 위치를 살필 수 있다.

또한 『산림경제』에 실려 있는 농업 기술 인용의 질적인 측면을 보아도 『農事直說』이 『山林經濟』의 체제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90건의 인용 건수를 보이는 『농사직설』의 조목 가운데 총 88건이 전체 조목을 인용하는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2건이 細註로 인용된 것이었다. 이렇게 『농사직설』에서 인용한 부분의 거의 전부가 전체 조목을 인용하는 부분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점은 달리 말해서 『산림경제』 「治農」의 뼈대가 바로 『농사직설』의 그것이라는 점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農事直說』에서 인용한 부분이 『산림경제』의 내용 가운데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산림경제』 「治農」이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이후에 수행되는 농서 편찬 작업에 하나의 정형을 제공하는 역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農書이지만, 그 체제와 구성은 이미 조선 전기에 『농사직설』에서 마련된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은 달리 말해서 『산림경제』에 인용된 『농사직설』, 즉 『농가집성』에서 증보된 그 『농사직설』이 조선농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나의 典範, 祖宗成憲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 『山林經濟』 「治農」의 農書別 引用 條目數 내역 (전체조목-세주)

直說(集成)	朝鮮 農書					中國 農書			
	衿陽雜錄	直說補	閑情(錄)	閑情補	기타(類說)	神隱	居家必用	四時纂要	기타
88-2건	3-0건	4-1건	18-16건	6-0건	1-3건	39-25건	20-1건	42-6건	3-0건

『山林經濟』와 『農事直說』의 項目 目次를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山林經濟』와 『農事直說』의 항목 목차 비교 (번호는 『農事直說』의 목차 순서)

山林經濟 項目	農事直說 項目	비고
驗歲	-	
祈穀	-	
擇種	備穀種 ①	명칭 변동
收糞	-	
耕播	耕地 ②	명칭 변동
種稻(早稻 次早稻 晚稻 旱稻 中稻 晚稻)	種稻 附旱稻 ④	구성 차이
種黍 粟 稷 藟黍	種黍粟 附占勿谷粟·青粱粟·藟黍 ⑤	구성 차이, 『農事直說』은 '種稷(附姜稷) ⑥' 이 독자 항목
種大豆 小豆 菜豆	種大豆 小豆 菜豆 ⑦	
種芝麻 水蘇麻	種胡麻(附油麻 水蘇麻) ⑨	
種蕎麥	種蕎麥 ⑩	
種大小麥	種大小麥(附春甦) ⑧	
種薏苡	-	
種木花	種木花法 ⑪	
種麻 苧麻	種麻 ③	항목 목차 변동
種紅花	-	
種藍	-	
種靛	-	
種茵草	-	

『山林經濟』와 『農事直說』의 項目 目次는 크게 보아 麻 경작법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점과 앞 부분에 驗歲·祈穀과 더불어 收糞이 독립 항목으로 설정되었다는 점 등이 눈에 띄게 차이점으로 드러난다. 이외에 稻種 등을 비롯하여 각 작물의 品種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차이점이다. 그런데 薏苡·紅花·藍·靛·茵草 등 「治農」보다는 「治圃」에 수록되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일 수도 있는 작물 재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증보된 부분을 따로 검토할 부분으로 제외하면 두 農書의 수록내용은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山林經濟』가 『農事直說』을 전범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홍만선의 『山林經濟』는 세상에 나온 뒤에 곧바로 山林에 뜻을 둔 많은 사람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필사본이 만들어졌고, 뒤이어 '山林經濟增補書'가 등장하게 되었다. 『山林經濟』 필사본의 유행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山林經濟』의 현황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규장각에는 총 5종의 『산림경제』가 있다.<sup>41)</sup> 그런데 이 가운데 청구기호가 <一叢 古 630.2-H758s>인 필사본은 3책(零本)인데 『山林經濟』 救急(앞

부분 일부 탈락)·種樹·治膳을 수록한 1책과 『增補山林經濟』의 救急·治圃·攝生 등을 수록한 2책을 잘못 엮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山林經濟』와 『增補山林經濟』를 크게 분별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엮어서 참고하는 방식의 필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구기호가 <古 9100-9>인 필사본은 1책 짜리 零本인데, 표지에 『山林經濟單』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稻種에 대한 설명이 없고, 각 조목 뒤에 인용서명을 붙인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筆寫者의 개인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筆寫한 것이 남겨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農書』2에 영인된 필사본에 비해서 조목을 나누는 ‘○’ 표시가 훨씬 정교하게 붙어 있다는 점에서 필사하면서 필사자의 관심에 따라 내용을 加減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청구기호가 <想白 古 630.951-H758s>인 寫本은 4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元亨利貞’이라는 책수 표시를 붙여 놓고 있다. 그리고 청구기호가 <古 9100-6>인 사본은 역시 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仁義禮智’로 책수를 표시하였다. 두 필사본 모두 내용상 커다란 특징은 없다. 끝으로 청구기호가 <一叢 古 630.2-H758sa>인 寫本은 2책인데, 『山林經濟』의 항목 순서를 뒤바꾸어 1-4권으로 나누어 필사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山林經濟』는 항목 구성에서 종합농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인용 農書의 측면에서 『農事直說』을 전범으로 삼고 있었으며, 18세기 초반 이후 수많은 筆寫本으로 유통되어 전해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2. 18세기 중반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 편찬

18세기 중반 이후 『山林經濟』를 增補한 農書 이른바 ‘山林經濟增補書’가 연이어 편찬되었다.<sup>42)</sup> ‘山林經濟增補書’가 잇달아 편찬되는 상황은 농서편찬의 커다란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16세기 중반 이후 농서 편찬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진행된 地域農書의 편찬이라는 흐름과 17세기 중반 『農家集成』이라는 綜合農書를 지향하는 農書가 편찬되면서 종합적인 農書를 편찬하려는 흐름이 점차 하나로 모아진 것이었다.

『山林經濟』 자체가 수많은 필사본으로 각처에 유행하는 상황에서 『산림경제』의 본문을 증보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增補書’가 편찬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山林經濟增補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를 면

41)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의 원본을 규장각의 厚意로 직접 열람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42) 『山林經濟』 편찬 이후 여러 가지 ‘山林經濟增補書’가 편찬되는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金容燮, 1988, 「3. 『山林經濟』의 增補와 그 農業論」,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밀히 검토한다. 그리하여 『增補山林經濟』를 중심으로 18세기 중반 이후 농서 편찬의 흐름을 정리하고 나아가 ‘山林經濟增補書’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편찬자인 柳重臨의 생애를 살펴보자.

### (1) 醫官 柳重臨의 생애

柳重臨은 生沒年을 비롯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형편이다. 醫官으로 英祖 때에 太醫院 醫藥을 지냈고, 『增補山林經濟』를 편찬하였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또한 醫官으로서의 개인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유중림의 생애에 대한 정보는 『增補山林經濟』에 붙어 있는 任希聖의 「增補山林經濟序」에서 겨우 얻을 수 있다.<sup>43)</sup>

임희성은 유중림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임희성이 지은 「增補山林經濟序」에서 柳重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에 모두 유중림의 字인 大而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점과 유중림이 은거를 결심하면서 임희성에게 『증보산림경제』의 서문을 부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절친한 관계를 살필 수 있다.<sup>44)</sup> 따라서 임희성이 「증보산림경제서」에 기록한 유중림의 생애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보산림경제서」에 따르면 柳重臨의 본관은 文化이고, 字는 大而이며, 號는 未詳이다.<sup>45)</sup> 그는 숙종대 痘醫로 이름을 떨쳤던 柳璫의 후손이라고 전해진다.<sup>46)</sup> 유상은 1683년(숙종 9) 왕의 痘患을 侍診하였으며, 그 공으로 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sup>47)</sup> 이후 1699년에는 세자의 두환을 치료하기도 하였다. 이 점은 뒤에 자세히 나오지만 柳重臨도 世孫이던 正祖의 痘瘡를 치료하였다는 점에서 醫官 家門의 家格을 살필 수 있다.

유중림은 어렸을 적에 靑衿生 즉 初試 합격생의 자격으로 成均館에서 수학한 적이 있고, 京軍門에서 일을 본 적도 있었다.<sup>48)</sup> 그러다가 中歲에 太醫內院 즉 典醫監에 들어가 醫藥의 일을 맡아 보았다.<sup>49)</sup> 의원으로 생활하면서 西班祿을 받고 밖으로 나가 民社 즉 민간의 백성

43)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序(任希聖), 『農書』3, 3~6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의 柳重臨 항목도 任希聖의 서문에 나온 내용을 소개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44)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序(任希聖), 『農書』3, 3~6면.

45) 富樫直次郎과 三木榮이 柳重臨의 號를 文城이라고 표시한 것은 “文化 柳氏인 柳重臨의 字는 大而”를 표현한 “文城柳君重臨大而”를 잘못 해독한 결과이다(富樫直次郎·三木榮, 1937, 「山林經濟考」, 『朝鮮』 3월호 262號 拔刷(서울대 구간도서 9100-296).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黃海道 文化의 별칭의 하나가 文城이다.

46) 三木榮, 1962, 『朝鮮醫學史及疾病史』, 225면.

47)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10월 戊午;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11월 甲戌;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11월 丁丑.

48)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序(任希聖), 『農書』3, 5면. “大而少嘗以靑衿生 登上舍間 從韋跗注之君子 執事京軍門.”

이 거주하는 곳에서 醫法을 시험하기도 하였다.<sup>50)</sup> 柳重臨이 上舍生이었다가 軍門에 종사하기도 하고 결국 醫員이 되는 상황은 조선후기 양반 가문의 자제가 경험할 만한 자취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앞서 살핀 대로 醫員職을 세습적으로 점유하던 醫官 家門의 일원임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柳重臨은 醫員으로서 뚜렷한 행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醫官으로서의 생활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任希聖은 유중림이 豪傑의 풍모를 지니고 있으며 술을 아주 잘 마셨다고 지적하였다. 유중림은 또한 古詩歌를 좋아하여 궤 속에 수백 편을 쌓아두고 있었다. 그 聲調가 대부분 맑고 깊어서 세상에서 그것에 미칠 만한 것이 없다고 지적받을 정도였다.

그런데 유중림은 세상 사람들로 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 연유는 상세히 알기 어렵지만, 세상에 그 뜻을 펴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유중림의 생애는 결국 그가 임희성에게 『增補山林經濟』 서문을 부탁하여 받은 이후 醫員職을 벗어 던지고 적막한 지경에서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 세상과 인연을 끝맺은 것으로 보인다. 임희성이 지은 序文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중림의 隱居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임희성이 「증보산림경제서」를 지은 것이 1766년인데 이때 유중림 자신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니, 이후 그리 오래 세상에 머물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1)</sup>

醫官 유중림은 1761년 內醫로서 조선 왕조의 命運을 바꾸는 일에 깊이 관여한 적이 있었다. 이 일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의관으로서의 행적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는 점과 당대 醫官에 대한 처우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바로 柳重臨이 世孫 시절의 正祖의 痘瘡를 치료한 일이었다. 그러한 일의 전말을 『日省錄』과 『版籍司恩賜謄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版籍司恩賜謄錄』을 살펴보면, 1788년(正祖 12, 戊申)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版籍司의 啓가 실려 있다.<sup>52)</sup> 이 기록으로 醫官 柳重臨과 正祖의 관계가 남다른 것이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版籍司에서) 啓하기를 “故 醫官 柳重臨이 辛巳年(1761, 영조 37)에 差備 待令하였을 때 恩賜받은 田 15結을 아직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量案에 실려 있지 않은 黃海道

49) 典醫監은 『경국대전』 이래 醫藥을 內用 및 賜典에 공급하는 임무를 관장하는 아문이었다. 內醫院과 마찬가지로 正三品 衙門이었다(『大典會通』 권1, 吏典, 京官職 典醫監).

50)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序(任希聖), 『農書』3, 1981, 아세아문화사, 5면. “中歲 入太醫院 受西班牙祿 出而少試諸民社之間.” 柳重臨이 中歲에 西班牙 즉 武班의 祿을 받았다는 것은 조선후기에 유명무실화된 五衛의 副護軍 이하 각 軍職을 醫員에게 내려주어 遞兒祿을 받게 한 것과 연관될 것이다(『續大典』 권4, 兵典 五衛).

51) 『版籍司恩賜謄錄』의 1788년 기록에 柳重臨을 故醫官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788년 이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52) 『版籍司恩賜謄錄』의 內題는 『恩賜給結謄錄』으로 되어 있다. 이 謄錄은 功臣 등에게 無主陳田, 量外田 등을 賜牌田·恩賜田의 명목으로 토지를 折受한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版籍司謄錄 解題』, 1995, 『各司謄錄 81 版籍司謄錄』, 국사편찬위원회, 5면).

安岳郡의 新築 筒田 10結을 지목하여 받기를 바라는 진정을 올렸다. 이런 연유로 해당 邑에 査問하였는데 해당 邑에서 측량하여 만든 보고서가 지금 올라왔으니 전례에 따라 折給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sup>53)</sup>

版籍司가 올린 啓에서 우선 柳重臨의 후손이 1788년 당시 恩賜田으로 받아야 할 田土로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구체적으로 量案에 아직 실려 있지 않은 새로 만든 筒田으로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10結을 받으려는 의견을 첨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判積사는 해당 邑에 조사를 지시하여 打量한 成冊을 근거로 柳重臨의 후손에게 황해도 안악군의 筒田 10결을 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恩賜田이 내려지고 있는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柳重臨이 1761년(英祖 37)에 差備待令할 때 어떤 공로를 세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柳重臨이 1761년에 세운 공로는 분명히 醫官이라는 직책과 직접 연결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판적사은사등록』 속에는 다수의 醫官에 대한 恩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도 그러한 설명을 보완해주고 있다.

정조는 版籍司의 보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王命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柳重臨이 醫官으로서 공로를 세웠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正祖가) 傳하기를 “故 醫官 柳重臨의 功을 잊을 수 없다. 만약 (柳)重臨이 없었더라면 어찌 병이 나아 완쾌되었을 것인가. 주어야 할 田畝를 지금 비로소 진정을 올렸다고 하니, 여기에 나의 뜻을 보여주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중략) 만약 그 아들과 손자에 醫業에 종사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院으로 하여금 찾아보아서 보고하도록 분부할 것”이라고 하였다.<sup>54)</sup>

正祖는 柳重臨의 功 덕분에 병에서 완쾌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유증림의 후손들에게 恩賜한 田畝를 당연히 내려주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게다가 柳重臨의 子孫 가운데 醫業에 종사하는 자를 찾아내어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正祖가 유증림의 치료 덕분에 병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李泰遠·鄭允明 등 2명도 동일한 공로를 세웠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고 있었다.<sup>55)</sup>

유증림이 醫官으로서 1761년(영조 37)에 세운 공로에 대한 기록을 『日省錄』 기사에서 찾

53) 『版籍司恩賜謄錄』 戊申年(1788년, 정조 12) 9月 日(『各司謄錄 81 版籍司謄錄』, 1995, 국사편찬위원회, 819면). “啓曰 故醫官 柳重臨 辛巳年 差備待令時 恩賜田 十五結 尙未受出矣 黃海道 安岳郡 量外 新築筒田 十結 呈狀願受 故査問該邑 打量成冊 今已上來 依例折給 何如.”

54) 『版籍司恩賜謄錄』 戊申年(1788년, 정조 12) 9月 日(『各司謄錄 81 版籍司謄錄』, 819면). “傳曰 故醫官 柳重臨之功 不可忘也 如無重臨 豈得瘳完 所授田畝 今始望呈云 此不可無示意者 (… ) 如有其子若孫 之業醫者 令該院訪問草記事 分付.”

55) 『版籍司恩賜謄錄』 戊申年(1788년, 정조 12) 9月 日(『各司謄錄 81 版籍司謄錄』, 819면). 李泰遠은 首醫로서 1766년 73세이던 英祖의 병을 고친 공로를 인정받아 熟馬를 지급 받기도 하였다(『英祖實錄』 권107, 영조 42년 6월 癸丑).

을 수 있다. 1761년 正祖가 世孫일 때 痘瘡을 앓았다는 기사들과 더불어 醫官으로 柳重臨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謹獨閣에서 講學에 열중하던 世孫에게 痘候가 발병한 것은 1761년(영조 37) 11월 23일경이었다.<sup>56)</sup> 이때 藥房에서 入對하여 世孫을 진찰하였다.<sup>57)</sup> 약방 도제조 洪鳳漢을 世孫을 소견하면서 그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英祖는 醫官 鄭允明으로 하여금 상세한 증상을 보고하게 하고, 이어서 醫藥廳을 설치하여 제조와 부제조를 加差하게 하였다.<sup>58)</sup> 이후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영조가 계속 醫官을 불러 痘候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하고 있는데, 11월 28일 醫官을 召對하는 자리에서 掌務官 柳重臨에게 증상을 묻고 있다.<sup>59)</sup> 柳重臨은 世孫의 증상이 泥洞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경우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고, 面部에 생긴 顆粒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히 대답하고, 世孫이 鄭允明에게 『大學』을 읽게 하여 듣고 있다는 정황까지 설명하였다.<sup>60)</sup> 이후 醫藥廳은 계속해서 世孫의 병상을 살펴서 영조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醫員이 함께 世孫을 진찰하고 진료에 대해서 논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2월 10일이 되면 世孫의 痘候는 거의 완쾌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禮曹에서는 痘候에서 회복된 것을 宗廟 등에게 아뢰는 일자를 擇日하여 보고하였다.<sup>61)</sup>

柳重臨은 世孫의 치료에 참여한 醫官 중에서는 가장 직위가 높던가 또는 공로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761년 12월 7일 世孫의 증상이 호전되는 쪽으로 정해지자, 영조는 昌德宮 謹獨閣에 직접 가서 살펴보고 藥院의 諸臣에게 시상을 내리고 있는데, 의원 중에서는 柳重臨을 제일 먼저 施賞하였다. 영조는 유증림에게 加資하고 守令에 除授하며, 熟馬 1匹을 面給하고 銀子 20냥, 田 15結, 奴婢 3口를 賜給하는 시상을 내렸다.<sup>62)</sup> 앞서 『판적사은사등록』에서 지적된 유증림이 받아야 할 田畝 15結이란 바로 이때 시상된 것이었다. 柳重臨은 이후에도 영조가 藥院 諸臣을 召見하여 世孫의 痘候가 진행된 정도를 하문할 때 제일 먼저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sup>63)</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柳重臨은 1761년 世孫 시절의 正祖가 痘瘡에 걸렸을 때 주무

56) 『日省錄』 英祖 37년 11월 27일 辛酉 ‘有痘候藥房直宿’.

57) 『英祖實錄』 권98, 영조 37년 11월 丁巳. 그런데 세손이 痘候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英祖實錄』에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좌부승지 洪名漢을 議藥廳의 副提調로 추가 差任하게 命하는 내용이 실린 11월 27일 기사부터였다(『英祖實錄』 권98, 영조 37년 11월 辛酉).

58) 鄭允明은 바로 『版籍司恩賜謄錄』에 正祖가 柳重臨과 같은 공을 세운 인물로 지목한 사람이다. 유증림의 공이 바로 이때 世孫의 痘瘡을 완쾌시킨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59) 『日省錄』 英祖 37년 11월 28일 壬戌 ‘上下詢痘候於醫官’.

60) 『日省錄』 英祖 37년 11월 28일 壬戌 ‘上下詢痘候於醫官’. “申時 召對 上曰 痘情 頗順好矣 仍下詢 掌務官柳重臨曰 痘情與泥洞 何如(柳)重臨曰 比諸泥洞 還勝矣 而顆粒尖突肥潤 脈度且緩 先出者 似有脹氣矣.”

61) 『日省錄』 영조 37년 12월 10일 甲戌 ‘禮曹擇奏痘候平復古廟吉日’; 『英祖實錄』 권98, 영조 37년 12월 辛未.

62) 『日省錄』 英祖 37년 12월 7일 辛未 ‘上駕至昌德宮 臨視 仍召見藥院諸臣施賞’.

63) 『日省錄』 英祖 37년 12월 8일 壬申 ‘上召見藥院諸臣’.



醫官으로서 완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內醫院에서 世孫의 병을 치료하는 데 관여하는 柳重臨의 행적은 전형적인 醫官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희성의 「증보산림경제서」와 『日省錄』 등의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유중림의 생애는 그가 洪萬選의 『山林經濟』에 불만을 품고 증보하는 공로만 없다면 세습적인 中人 醫員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醫官 출신인 柳重臨이 綜合農書이자 在地土族의 생활지침서에 해당하는 『山林經濟』를 增補하였다라는 점은 조선 후기 중인층의 성장이라는 사정과 더불어 그 의의를 되새겨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중인층의 성장이 委巷文學運動과 通淸運動으로 표출되는 상황은 잘 알려져 있다.<sup>64)</sup> 이러한 중인층의 성장이라는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유중림의 『增補山林經濟』 편찬의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인층은 경제적 지위의 향상, 신분적 차별의 철폐 등의 방향으로 성장의 발판을 찾으면서 또한 당대의 在地土族의 생활양태를 모범으로 설정하고 모방하면서 이를 토대로 土族과의 교류를 수행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sup>65)</sup>

## (2) 『增補山林經濟』의 구성체제

18세기 중반 柳重臨은 『산림경제』를 증보하여 『增補山林經濟』를 편찬하였다.<sup>66)</sup> 유중림이 『增補山林經濟』의 편찬을 완료한 시기는 임희성이 서문을 지은 1766년 무렵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증보산림경제』를 편찬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산림경제』가 지닌 소략함 때문이었다. 임희성의 지적에 따르면 『山林經濟』가 세상에 나온 지 불과 40~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1760년대에 벌써 『山林經濟』를 누가 언제 지었는지 미상인 상황이었다.<sup>67)</sup> 임희성이 살던 시기에 洪萬選이 『산림경제』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어렵듯하게 되었다는 것이 흥미롭지만, 이는 『산림경제』 자체가 板本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筆寫本으로만 유전되었기 때문에 생긴 모호함일 것이다.

유중림이 보기에 『산림경제』는 隱居하는 선비가 安貧하면서 직접 힘으로 먹고살 수 있는 要訣임에 틀림없지만 卷帙이 작아서 綱領이나 條目에 소략한 점이 문제였다.<sup>68)</sup> 그는 따라

64) 鄭玉子, 1986, 「朝鮮 後期の 技術職 中人」, 『震檀學報』61, 震檀學會; 鄭玉子, 1988, 『朝鮮後期 文化運動史』, 一潮閣.

65) 醫官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 編纂의 의의를 중인층의 재지사족의 생활양태에 대한 흥미와 모방, 그리고 교류의 모색으로 정리 평가하는 것은 중인층의 성장과 관련하여 僉人이자 胥吏로 입신하였던 李潤善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京華巨族의 문화를 모방한 점을 지적한 다음 연구에서 시사 받은 것이다. 유봉학, 1998, 「僉人-胥吏 출신의 李潤善」,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66) 金容燮, 1970, 『朝鮮後期 農學의 發達』 韓國文化研究叢書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序」(任希聖 撰).

67)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序(任希聖). “顧此書 不詳 作者何人 傳之自何時.”

68)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序(任希聖). “概觀乎編內所收 莫非是土之窮居不得志者 安貧食力之要訣 但其爲書 卷帙太少 綱領條目 或多疏漏不盡之歎.”

서 『山林經濟』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여 山家の 淸趣에 관계되는 것을 모두 항목별로 나누어 수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增補山林經濟』이다.

『증보산림경제』는 『산림경제』를 대대적으로 증보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구성 내용을 가진 책이었다.<sup>69)</sup> 즉 기본적으로 『산림경제』를 증보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서술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산림경제』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책이었다.

유중림의 『增補山林經濟』가 『山林經濟』의 增補를 수행한 방식과 그 성격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검토한다. 耕播하는 방법을 설명하다가 區田法을 증보한 부분에 들어 있는 다음 기사는 柳重臨의 『山林經濟』 증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러한 증보가 지닌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區田法을 살펴보았는데 대개는 지금의 오이를 심는 것과 서로 비슷하다. (...) 壬辰年과 戊戌年 사이에 다만 3~5畝에 區種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기근과 굶주림을 모면하였다고 한다. 대개 이 法은 줄기가 자라는 주변 농지를 起耕하지 않으면서도 地力을 거의 다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sup>70)</sup>

위의 조목에 등장하는 壬辰年과 戊戌年 사이라는 시점은 일단 任希聖이 서문을 지은 1766년 이전인 1712년(숙종 38, 壬辰)부터 1718년(숙종 44, 戊戌)까지로 비정할 수 있다. 물론 1772년부터 1778년까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1766년 임희성이 「增補山林經濟序」를 지으면서 柳重臨이 『산림경제』의 내용을 많이 증보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이 무렵 『增補山林經濟』의 편찬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대 추정을 이보다 앞선 시기로 잡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중림에게 1710년대의 일은 아주 나이가 어릴 때의 일이거나 아니면 태어나기 전의 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의 區田法 사례는 유중림이 문자로 옮길 때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口傳자료이거나 또는 다른 書冊에 기록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柳重臨의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기의 區田法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증보산림경제』의 『산림경제』 증보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 것으로 볼 근거가 된다.

유중림이 『산림경제』를 증보하는 모습은 任希聖이 서문에 다음과 같이 잘 묘사되어 있다.

(柳重臨이) 山林經濟가 卷帙이 너무나 작고 綱領과 條目이 또한 소루하여 빠진 것이 많음

69) 富樫直次郎·三木榮, 1937, 「山林經濟考」, 『朝鮮』 3월호 262號 拔刷(서울대 중앙도서관 구간도서 9100-296).

70)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治農」, 〈耕播〉, “竊考 區田法 大槩 與今之種瓜相類 (...) 壬辰戊戌之際 但能 區種三五畝者 皆免飢殍云 蓋此法 不耕傍地 庶盡地力.”

을 병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자못 부연하여 책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뜻을 두어, 여러 해에 걸쳐 공력을 들였다. 古今의 書籍 가운데 山家의 淸趣에 조금이라도 관계된 것을 모두 수집하고 망라하여 덧붙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增補하고 일에 따라서 지워서 고치거나 강조점을 찍기도 하였다. 혹은 따로 분류하여 門戶를 세우고, 자기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 또한 10 중에 2, 3정도가 된다. 編으로 삼은 것이 모두 16編이고, 目으로 삼은 것이 28目이다. 舊本에 비하여 분량이 배나 되었다.<sup>71)</sup>

『山林經濟』의 내용을 증보하고 개정하기 위해 애쓰는 유중림의 모습이 눈에 잡힐 듯하다. 柳重臨이 정력을 기울여 『증보산림경제』를 편찬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증보한 내용 가운데 자기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 20~30% 정도 될 것이라는 임희성의 주장은 실제 『증보산림경제』 내용 속에서 확인된다.

다음의 <표 4>는 『증보산림경제』의 卷冊 구성 내역을 살핀 것인데, 『山林經濟』에 비해서 권책 구성이 복잡해졌음을 잘 보여준다. 『增補山林經濟』는 총 1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卜居·治農에서부터 雜方·東國山水錄에 이르기까지 산림 처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요긴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었다.

『增補山林經濟』는 『山林經濟』의 내용을 단순히 양만 증가시킨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증보산림경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산림경제』와 비교할 수 없지만, 「治農」을 중심으로 두 책의 조목수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작업을 통해 『증보산림경제』 「治農」이 어떠한 방향으로 「산림경제」 「치농」을 증보하였는가 밝힐 수 있다. 아래의 <표 5>는 첫째 『증

<표 4> 『增補山林經濟』의 권책별 항목 구성 내역

	增補山林經濟 目次
1책	卷1 卜居, 卷2 治農, 卷3 種樹, 卷4 養花
2책	卷5 養蠶, 牧養 養牛 등
3책	卷6 治圃, 卷7 攝生 種德
4책	卷8 治膳 上, 卷9 治膳 下, 卷10 救荒
5책	卷11 家政 上, 卷12 家政 下, 卷13 求嗣
6책	卷14 救急
7책	卷15 增補四時纂要, 田家占候, 選擇
8책	卷16 雜方, 東國山水錄 등

\* 출처: 『農書』 3~5(奎章閣, <古 9100-10>, 16권 8책)

71)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序(任希聖). “文城柳君重臨 大而爲是之病 留意衍成 費功積有年所 古今書籍之稍涉於山家淸趣者 靡不蒐羅 而抉剔之 逐日增補 隨事塗點 或別立門戶 附見己意者 亦十二三 爲編總十有六 爲目二十有八 多寡視舊本倍之.”

〈표 5〉 『增補山林經濟』 「治農」이 『山林經濟』 「治農」을 增加·補完한 條目 내역

項目	元條目數	增加 條目數	補完 條目數	비고
(耕田宜: 元 耕播)		7개	1개	增加: 衿陽雜錄 3개
驗歲	35개	1개	1개(俗方)	
祈穀	6개		1개	
(荒地辨試法)		1개	1개	
耕播	29개	1개	6개	원 순서는 收糞 뒤
擇種	7개	2개		
收糞	7개	5개		
(稻種 소개)		1개		
種稻	22개	5개	5개	醫苗法이란 명칭 부여
種黍粟稷菑黍	18개	6개	4개	
種太豆小豆菜豆	17개	7개	1개	
種大小麥	18개	4개	7개	원 순서는 蕎麥 뒤
種芝麻水蘇麻	6개	3개		玉蜀黍 1개 추가
種蕎麥	5개	2개	1개	耳麥 1개 추가
種薏苡	2개			
種木花	5개	4개	5개	
種麻苧麻	14개	9개	4개	麻 4개
種紅花	4개			권6 治圃로 이동
種藍	3개			上同
種靛	3개			上同
種茵草	1개			上同
합계	202개	58개	37개	增補: 95개

보산림경제』가 순수하게 조목 전체를 증대시킨 건수와 몇몇 단어나 구절을 첨부하여 조목의 내용을 보완한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여 만든 것이다.

『增補山林經濟』가 『山林經濟』를 增補한 부분을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산림경제』의 「治農」은 전체 조목의 숫자가 191개(『증보산림경제』에서 紅花 등 治圃로 이동한 11개 제외)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7개의 조목에서 『증보산림경제』가 보완하는 구절을 첨부하였고, 새롭게 순수하게 증대시킨 조목의 숫자도 58개나 되었다. 『산림경제』 치농의 조목수(191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증보산림경제』 치농조는 58개의 조목을 증가시켰으니 비율로 따져서 30.3%가 증가한 것이고, 19.4%인 37개를 보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增補山林經濟』 「치농」이 『山林經濟』 「치농」을 증보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자. 질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증보의 사례로 甘藷 경작법을 수록한 부분을 주목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甘藷 즉 고구마가 조선 국내로 들어온 것은 1763년 일

본에 통신사행의 정사로 건너간 趙曦(1719~1777)으로부터 비롯한다.<sup>72)</sup> 甘藷가 조선에 전파된 이후 감저재배법을 정리한 최초의 인물은 姜必履였다. 그는 감저를 수 차례 시험 재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저재배법을 정리하여 『甘藷譜』를 지었다. 그런데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에 그의 甘藷種植法이 압축 수록되어 있다.<sup>73)</sup> 유중림은 『증보산림경제』에 조선의 감저 경작법 정리의 밑거름이 되는 姜必履의 『甘藷譜』를 수록하면서 구황작물의 경작에도 관심을 기울여 실질적인 『山林經濟』 증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두번째로 『增補山林經濟』는 『山林經濟』를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施肥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增補山林經濟』 「治農」은 『山林經濟』에서는 개개 작물의 경작기술을 설명한 부분에 들어있던 施肥 관련조목을 수합하여 收糞 項目으로 서술 위치를 이동시켜놓았다. 예를 들어 “蘆草가 매우 좋지만 절기가 늦은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날마다 부쩍 자라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하여 移秧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조목은 본래 『山林經濟』의 種稻 插秧法에 들어가 있는 기사였지만,<sup>74)</sup> 『증보산림경제』는 이 시비 관련 조목을 收糞항목으로 옮겨 놓고 있다.<sup>75)</sup>

이와 관련해서 『增補山林經濟』 「治農」은 전체의 항목 배열 순서를 『山林經濟』의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약간 변형시켜서 설정하고 있었는데,<sup>76)</sup> 특히 收糞에 관련된 항목의 전후 배열 관계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山林經濟』가 擇種 → 收糞 → 耕播의 순서로 항목을 배열한 반면에 『增補山林經濟』는 耕播 → 擇種 → 收糞으로 나열하고 있어서 耕播와 收糞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柳重臨은 시비관련 條目을 5조목이나 증보하여 원래의 7조목과 더해 총 12조목을 收糞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었지만, 項目의 순서를 바꾼 이유에 대한 설명을 더하지 않았다. 하지만 耕播와 收糞의 순서를 앞뒤로 바꾸는 것은 收糞 즉 施肥의 독자적인 기술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農事直說』이 시비를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조차 하지 않은 채 耕播와 결합시켜서 설명하던 것에서 점차 벗어나는 과정을 농서 편찬의 항목 설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柳重臨은 施肥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營農하는 農家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敗家の 아이는 珠玉을 糞土와 같이 보고, 興家の 아이는 糞土를 珠玉과 같이 본다”라는 옛날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비 재료를 모

72) 趙曦, 『海槎日記』 권5, 甲申年(1764년) 6월 18일 무술(『國譯 海行摠載』Ⅶ, 민족문화추진회, 311~312면).

73) 金容燮, 1988,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236면; 吳壽京, 1995, 「朝鮮後期 利用厚生學의 展開와 『甘藷譜』의 編纂」, 『安東文化』16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6~22면.

74) 『山林經濟』 「治農」, 〈種稻〉. “○ 蘆草甚好 而可欠節晚 然日日苗長 可以計日移秧.”

75) 『增補山林經濟』 「治農」, 〈收糞〉. “○ 蘆草甚好 而可欠節晚 然日日苗長 可以計日移秧.”

76) 『增補山林經濟』 「治農」의 項目 순서를 보면 農家要務, 農談, 驗歲, 祈穀, 荒地辨試法, 耕播, 擇種, 收糞, 種稻의 순이었다.

아서 시비할 것을 강조하였다.<sup>77)</sup>

세 번째로 계속해서 施肥와 관련된 부분인데, 水稻를 경작하면서 耕種과정에서 시비재료를 넣어주는 基肥가 아니라 작물이 성장하고 있을 때 시비재료를 넣어주는 追肥를 실행하는 모습을 바로 『增補山林經濟』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早稻를 水付種하고 뒤이어 苗가 자라났을 때에 手耘을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農事直說』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尿灰라는 시비 재료를 苗가 자라고 있는 田土에 뿌려주라는 追肥를 지시하고 있었다.<sup>78)</sup> 施肥의 효과가 바로 작물을 자라나게 밀어주는 것 즉 ‘推長’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한 바로 작물의 ‘推長’을 목표로 시비를 해야 한다는 주안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조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追肥가 지닌 효과를 조리 있게 증보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增補山林經濟』가 질적인 측면에서 『山林經濟』를 증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增補山林經濟』는 『山林經濟』를 양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으로 증보하였고, 그러한 증보는 결국 당대의 농업기술 발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施肥에 대한 강조가 보다 뚜렷하게 진전되는 농업기술 발달의 흐름을 『增補山林經濟』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한편 『增補山林經濟』 이외에 『山林經濟』를 기반으로 새로운 農書를 편찬하는 흐름은 18세기 후반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增補山林經濟』가 18세기 후반 이후 보급되어 유행하는 사정의 일단을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8종의 필사본의 서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8종 가운데 청구기호가 <奎 7676>인 필사본에는 8책 맨 뒤에 “壬申 3月 15日 楊戴熙 題”라는 구절이 보이고, 또한 청구기호가 <奎 12688>인 사본에는 권9 맨 뒤에 “庚戌 8月 初8日 午後 終”이라는 注記가 달려 있다. 앞서 나오는 楊戴熙란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필사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필사본에 나오는 ‘庚戌’은 1790년이거나 1850년일 가능성이 높는데, 바로 필사자가 필사를 마친 시점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2책 뒷부분에 痘瘡方·紅疹方·紅蓼神方 등을 수록한 것은 필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방문과 증상 등을 덧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두 필사본이 누군가 『증보산림경제』를 필사하여 옆에 두고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청구기호가 <古 9100-1A>인 필사본에는 李恒重의 印이 찍혀있고, 청구기호가 <古 9100-10>인 필사본에는 “判宗正日講官 李敦榮印”이라는 印記가 달려 있다. 또한 청구기호가 <一蓁 古 630.2-J572s>인 필사본에는 南敦承의 印이 찍혀 있다. 이와 같은 3개의 印記를 소장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 필사본도 『증보산림경제』를 필사하여 소장

77)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治農」, <收糞>.

78) 『增補山林經濟』 「種稻」, <早稻>. “一法 苗長 半握 以上 卽去水 以尿灰 量布畝上 過二日後 還灌水 則苗間灰氣 推長甚速也.”

하려는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청구기호가 <古 9100-1>인 필사본과 청구기호가 <一叢 古 630.2-J572b>인 필사본도 零本이고, 필사와 관련된 특별한 注記가 없기는 하지만 『증보산림경제』 필사본의 유행이라는 사정과 관계있음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증보산림경제』 가운데 청구기호가 <一叢 古 630.2-J572>인 필사본은 零本으로 6冊만 남아 있지만 “文化人 柳重臨 大而印”이라는 특이한 印記가 실려 있다. 만약 이 印記가 柳重臨 자신이 넣은 것이라면 특별한 필사본, 즉 柳重臨의 手澤本이자 草稿本이 될 것이다. 게다가 『農書』3으로 영인된 필사본(奎章閣, <古 9100-10>)에서 卜居 항목에 그림이 있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실제 그림은 빠져 있는 張眞人陽基圖, 建陽考亭朱夫子陽基, 鎮宅符, 六字符 등이 이 필사본에는 실려 있다. 또한 본문 중간의 군데군데에 朱墨과 靑墨으로 군데군데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밑줄을 긋고 점을 찍는 등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柳重臨의 手澤本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소장자가 『증보산림경제』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용하려는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필사본이라고 할 것이다.

## 맺음말

18세기 초중반 『山林經濟』와 『增補山林經濟』의 편찬 의의를 특히 「治農」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두 책의 편찬자인 洪萬選과 柳重臨의 개인적인 생애를 정리하고, 또한 두 책의 구성체제의 특질을 조목의 增加·補完 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의 보급 양상의 일단으로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본문내용에 대한 요약은 생략하고 19세기 초반 전라도 綾州 지역에서 韓錫敷가 편찬한 『竹僑便覽』 「治農」에 나타난 『山林經濟增補書』 편찬의 흐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sup>79)</sup>

19세기 초반에 전라도 綾州 지역에 거주하던 韓錫敷가 『竹僑便覽』 「治農」을 편찬하였다. 韓錫敷의 『竹僑便覽』 「治農」은 19세기 초반의 벼농사를 주로 경작하던 지역의 農法을 보여주는 農書로 그 의의를 정리할 수 있다. 『竹僑便覽』이 편찬된 연대는 「竹僑便覽小引」에 따르면 1849년으로 비정된다.<sup>80)</sup> 「治農」은 『竹僑便覽』 天地人 3冊 중 人冊에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청구기호는 <奎 2442>로 되어 있다.

79) 韓錫敷가 지은 『竹僑便覽』 「治農」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廉定燮, 2002. 「19세기 전반 전라도 능주지역의 벼농사 기술 - 『竹僑便覽』 「치농편」을 중심으로, 『농촌경제』25/1호 (2002년 봄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0) 韓錫敷, 『竹僑便覽』 天冊, 「竹僑便覽小引」.

『竹僑便覽』의 天冊과 地冊은 喪祭禮의 거행에 따른 세부사항별로 구분하여 정리되어 있다. 人冊은 治農(47章)과 醫藥(26章)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 앞머리의 목록을 보면 治農·治圃·種樹·養畜·占候·救荒·醫藥·養生(본문에는 攝生)·養心志·省嗜慾·節飲食·保身體·愼起居·導引·服食·科式の 순서로 되어 있다. 실제 서술도 각각의 내용을 조목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韓錫敷는 자신이 「治農」을 편찬하게 된 동기로 「백성들의 자질로는 衣食이 풍족해야 禮義를 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sup>81)</sup> 그는 農家類의 책을 모으고 평소에 듣고 본 것을 모아서 「治農」을 집필하였다. 주요 참고 農書는 『山林經濟』와 『農家集成』이었다.<sup>82)</sup>

저자인 韓錫敷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언급이 『竹僑便覽』 본문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序文이나 跋文이 『竹僑便覽』에 붙어 있지 않아서 생애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다만 天冊 앞머리에 실려 있는 「竹僑便覽小引」에 따르면 韓錫敷는 淸州韓氏로 竹樹라는 곳에서 거주하였다.<sup>83)</sup> 韓錫敷가 거주하던 竹樹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人冊의 「治農」 다음에 편찬된 「醫藥」의 시작부에 “余之蟄隱於綾東大樂山下”라는 구절이 보인다. 앞에 언급한 竹樹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全羅道 綾州의 異稱이다. 그리고 「醫藥」에 보이는 ‘綾東’이라는 구절을 綾州의 동쪽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韓錫敷가 칩거생활을 하던 곳은 바로 全羅道 綾城(綾州)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84)</sup> 따라서 『竹僑便覽』 「治農」에 보이는 農法은 19세기 초반 전라도 綾州 지역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9세기 초 전라도 綾州 지역에서 韓錫敷가 『竹僑便覽』 「治農」를 편찬한 것은 결국 洪萬選의 『山林經濟』를 增補하는 農書 편찬 흐름과 16세기 후반이래 地域農法을 정리하여 地域農書를 편찬하는 흐름이 하나로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山林經濟』와 같은 綜合農書 편찬의 흐름에 地域農書를 결합시키는 ‘山林經濟增補書’ 편찬 특색을 『竹僑便覽』 「治農」에서도 살필 수 있다.

81) 韓錫敷, 『竹僑便覽』 人冊, 「治農」 敷按.

82) 실제 원문에는 『農家』라고만 되어 있지만 「治農」의 실제 내용을 살펴볼 때 『農家集成』을 간단히 『農家』로 한 것으로 생각한다.

83) 韓錫敷, 『竹僑便覽』 天冊, 「竹僑便覽小引」, “淸州人 韓錫敷 僑居于竹樹之東.”

84) 韓錫敷의 생활공간을 全羅道 綾州 일대로 추정하더라도 문제는 그가 머물렀다고 언급한 大樂山이 어느 곳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아직도 해결해야 될 점으로 남아 있다. 『海東地圖』에도 綾州 인근에 大樂山이 보이지 않는다.